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들

올해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에 진행된 은사집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큰 감동을 주었다.

영광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서의 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셨다.

난생 처음 경험한 놀라운 일들!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 총회장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가 체험한 '2016 만민 하계수련회'.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내시다

'2016 만민 하계수련회'는 근시, 난시, 사시 등 '눈'에 관한 질병을 비롯해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 만민뉴스

제752호 2016년 8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펼쳐진 '2016 만민 하계수련회' 은사집회

해외 30여 개국에서 참석한 '2016 만민 하계수련회'가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열렸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구름, 비를 통해 최적의 기온을 조성해 주셨고, 성도들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특히 첫날 교육 후 진행된 은사집회에서는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걸으며 각종 질병 치유뿐 아니라 실명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등 폭발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친히 만난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 중 일부를 소개한다.



###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입니다!”

야콥 폴 목사 (파키스탄총회장연합협의회 회장)



'2000 이재록 목사 초청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는 영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크리스천뿐 아니라 무슬림도 참석해 응답과 축복, 개종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이후로도 이삭TV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대할 수 있었고, 길태식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손수건 집회(행 19:11~12)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파키스탄 기독교계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저는 지난 8월 8일 수련회 첫날,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을 실제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오기 전, 이재록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통해 소경이 눈을 뜨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재록 목사님과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에서 권능의 사역을 보고, 성도들의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섬김의 모습을 보며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매우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 “실명된 눈의 시력이 되살아나다니 기적입니다!”

박상영 성도 (51세, 1대대 4교구)



22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머리에 인공뼈를 삽입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뇌변환 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 빛조차 볼 수 없었지요.

이번 만민 하계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눈'에 관한 질병을 많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 눈은 예외라 생각했습니다.

8월 8일 수련회 첫날, 덕유산리조트에 늦게 도착한 저는 집회 장소인 점핑파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GCN 생방송으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던 중에 시원한 느낌과 함께 환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후 빛을 감지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보였지요.

이처럼 실명된 왼쪽 눈의 시력이 되살아나다니 기적입니다! 이제는 제 왼쪽 눈으로 달력의 큰 글자도 볼 수 있으며 색깔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데 소리가 들립니다!”

팡푸림 (45세, 말레이시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주일마다 만민중앙교회에 나오게 된 저는 수화통역을 통해 설교 말씀을 대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 소식을 듣고 저도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수련회 시 해외에서 참석한 27명의 농아가 귀가 열렸다는 간증을 듣고 저도 너무나 귀가 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 귀가 가렵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게도 역사해 주심을 느끼며 감동의 눈물이 흘렀지요. 그 뒤 놀랍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점점 잘 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영광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9)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삼시간에 퍼져 다음 날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90도로 굽은 허리가 펴지고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등 놀랍게 역사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행사 때마다 천기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1983년 8월 1일, 첫 하계수련회를 떠나는 날 새벽에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순간에 멈추는가 하면, 이후로도 교회의 주요 행사 때마다 일기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오던 비를 멈추게 하시는가 하면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게도 하셨지요.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시는가 하면, 아예 소멸되게 하신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89년 7월 28일, 태풍 ‘주디’가 맹렬한 기세로 우리나라로 오고 있어서 큰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계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는 금요일아침 예배 시 성도들과 함께 태풍을 물리치는 합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태풍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다음 날에는 ‘소멸됐다’는 뉴스를 들었지요. 이 밖에도 매년 하계수련회는 일기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단골 코스가 되었습니다.

### 둘째, 만민의 목자를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능력과 권능을 받기를 힘썼지요. 그 결과 능력과 권능을 받은 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보장해 주시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 99년 이후부터는 ‘재창조의 권능’까지 행하게 하시며 해외 연합대성회를 통해 단계별로 실습하게 하셨지요.

2000년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새 차원의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는 이슬

람 국가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2001년 ‘케냐 연합대성회’에서는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이 치료됐고, ‘필리핀 연합대성회’에서는 가톨릭국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2002년에는 영적인 허리케인으로 중남미를 강타한 ‘온두라스 연합대성회’와 최고, 최대, 최다의 기록을 세운 ‘인도 연합대성회’를 통해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지요.

2003년에는 중동 선교의 문이 열렸으며, ‘러시아 연합대성회’를 통해 영육 간에 얼어붙은 땅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뜨겁게 일으켰습니다. 2004년에는 ‘독일 연합대성회’와 ‘페루 연합대성회’를 통해서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지폈지요.

2006년 ‘콩고 연합대성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뉴욕 연합대성회’는 성회 실황이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송출되었습니다.

2007년 7월부터는 3년간 이스라엘 선교를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기독교계가 힘을 얻고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지요. 2009년 9월에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가 개최되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되심을 선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10년간 대장정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시 96:3).

한편, 하나님께서는 제 스스로 천기를 주관하는 방법도 알려 주시며 때때로 실습하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기온을 마음에 품어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기온을 조절하면 습도나 바람도 조절되어 날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 조절만으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쾌적하게 하거나 습한 바람이나 건조한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으며, 구름을 만들거나 흠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비를 내리게도, 비구름이 건히게도 함으로 장마철에 비나 태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처럼 기온을 조절하는 권능은 마지막 때 하나님 섭리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서 자연 재해가 일어나며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지요. 그런데 기온을 조절하면 자연 재해를 예방하며 잦아들게도,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머리급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요. 곧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는 말씀도 만민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사 60:3).

### 셋째, 만민의 양떼를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해 이루고자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는 참으로 광대합니다. 예수님 당시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들과 칠십 인이 있었던 것처럼(마 10:1 ; 눅 10:1), 만민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수많은 영적 장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주의 종과 일꾼들, 성도들이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2016년 올해에도, 내년에도 온 영의 열매가 두둑이 나와 제3도약기가 크게 열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지로 나가 성결의 복음을 외치고 권능을 행해야 하지요(막 16:20). 설령 세계로 나가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마 5:16 ; 벰전 2:12). 즉 우리가 성결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도 눈에 띄듯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요 13:32) 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제단을 통해 권능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인생으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크고 놀랍게 펼쳐졌지요. 만민의 34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제 믿음대로 불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각색병든 사람들과 귀신들린 사람들, 들것에 실려 온 중환자들이 기도받고 치료가 되었지요. 이런 광경을 본 교회 주변의 상인들은 아픈 사람을 보면 “만민교회로 가라.”고 소문을 낼 정도였습니다.

1983년 2월, 개척 후 첫 외부 부흥성회를 인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년 이상 견디 못하며 통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견고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아침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권능의 대폭발, 최적의 기온! 조직적인 운영과 사랑으로 하나 된 만민은 최고였습니다!”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 총회장, 사진 맨 왼쪽)



‘2016 만민 하계수련회’에 함께 참석한 (왼쪽 두 번째부터) 국제기독교상공회의소 러시아지부장 알렉산드르 블라스코 회장, 러시아 서우랄지역 선교회 발레리 드레노긴 총회장, 러시아만민교단협의회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총회장.



저희가 처음 만민을 알게 된 것은 2003년에 개최된 러시아 연합대성회였습니다(사진 1). 그 당시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였고, 개신교 교회들도 하나 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 성회를 통해 교계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후 러시아에서는 큰 규모의 성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지요. 저희는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 시 감사 이재록 박사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치료 받아 영광 돌린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 만민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총회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결의 복음으로 러시아뿐 아

니라 전 세계를 깨우고 있는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의 사역을 접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마지막 때가 죄가 관영하고, 교회들도 성결을 외치지 않는 타락한 세대에 살고 있어 성결의 복음을 외치는 권능의 목회자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뜻을 같이 하여 만민의 이름으로 ‘교회연합협의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방문은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사역하는 만민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자와 영상을 통해 이재록 박사의 성결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 성도들이 얼마나 성결을 사모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지 볼 수 있었고,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기도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결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섬기는 목자를 사랑하든지 보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고, 특히 이재록 박사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진실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날 교육 시 환자기도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치료받고 단에서 간증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1, 4면 참조). 러시아는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동안 이전에 체험해 보지 못한 폭염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련회 장소는 그리 덥지 않았고, 특히 교육 시에는 교육받기 적당한 날씨였습니다(사진 2).

둘째 날 체육대회는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조직적이고 잘 준비된 행사였습니다(사진 3).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시원한 바람과 구름, 온도 등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은혜받은 것은 하나 뭉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 없이 모두가 은혜로운 표정이었고, 수

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는 정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웅장한 규모의 무대와 사운드, 화려한 불꽃놀이, 성도들의 환호와 열정 등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사진 4). 특히 대 교회 목자이신 이재록 박사님께서 직접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에서 그분의 겸손함과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일 오후 저희는 잠자리 체험과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곤돌라를 타고 산에 올랐고 또 600미터를 걸어 산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그 후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저라 다리가 많이 빠근하였고, 소화가 안 되어 위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캠프파이어 시 함께 뛰며 찬양하고 나니 다리가 정상이 되었고, 이재록 박사님께서 찬양 인도 중에 기도해 주신 뒤에는 위의 통증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만민중앙교회 방문 시 보고 배운 것들을 통해 러시아에도 성결의 복음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뇌경색으로 쓰러져 휠체어 생활을 했는데 일어나 걸었습니다!”**

**정정옥 집사 (67세, 부산만민교회)**

올해 2월 26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옮겨진 저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5개월 넘게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였지요. 병원에서 남편의 도움으로 휴대폰으로 매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를 들으며 만민 하계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련회 첫날 교육 시간에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여 주셨건만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였지요. 그 뒤 환자기도를 받을 때,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와 일어서 보니 놀라게도 다리에 힘이 주어지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 눈의 검은 가로줄이 사라져 시야가 선명해지니 너무 좋습니다!”**

**마창호 집사 (54세, 중국 1교구)**

3년 전 갑자기 왼쪽 눈이 뿌옇게 보이더니 가운데 가로로 검은 줄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망막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왼쪽 눈만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더욱이 검은 줄로 인해 시야의 3/2밖에 볼 수 없었지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취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두 눈을 감은 채로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찬양을 부르다 눈을 뜬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 눈에 까만 줄이 없어져서 시야가 선명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만민 하계수련회 은사집회 시 회개 찬양을 할 때 세상을

전에는 큰 글씨 성경의 글자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엇을 봐도 깨끗이 보이니 세상이 달라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목발 없이 걸어서 5층까지 집을 옮겼습니다!”**

**홍용인 집사 (53세, 1대대 1교구)**

저는 척추가 삐뚤어지고 허리디스크까지 생겨 통증이 심했습니다. 작년 12월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허리에 는 두꺼운 복대를 한 채 목발을 의지해야 걸을 수 있었지요.

과정이라 믿었지요. 셋째 날 캠프파이어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당회장님을 보며 그 마음에 영혼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느껴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당회장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지요.

이번 하계수련회에서 치료받고자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제 안에 사랑이 없을 뿐 아니라 미워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자 노력했습니다. 수련회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다음 날까지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일어나 보니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뿐 아니라 목발 없이도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뒤에는 5층까지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을 만큼 강건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시, 난시, 안구건조증이 사라져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귀첸수 성도 (44세, 싱가포르)**



저는 근시, 난시에 안구건조증까지 있어 무엇을 보아도 초점이 잘 안 맞고 뿌옇게 보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연 막이 눈앞을 덮은 것처럼 너무도 답답했고, 안경을 써도 증상은 여전했지요. 그러니 자주 안경을 바꿔야 했고 올해는 증상이 더 심해져 안경을 세 차례나 바꿨지만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경 없이도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고통받던 어깨 통증이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리더쿤 성도 (35세, 말레이시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GCN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둘째 아이 유산 후 3년간 임신이 안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페낭만민교회 창립 7주년을 맞아 강사로 오신 조수열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고 잉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하계수련회에 사모함으로 참석한 저는 일정 내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고통받던 어깨 통증을 치료받았지요.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순간에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매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